

“풍경 담은 ‘디카詩’ 코로나 블루 위로됐으면”



인연의 끈
세월을 먹고 자란다고 했지
물이 낡아질 때쯤
우리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

생활 주변에서 시적 이미지나 영상을 포착해 짧게 표현한 시를 디카시(詩)라고 한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의 문학 장르로, 영상과 문자로 이루어진다. 순간을 포착해 영원속에 간직하려는 예술적 열망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이미지에 맞춰 짙은 시를 쓴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정영희 시인이 디카시집 ‘당신을 머리맡에 두고 편히 잔 적 없었다’(책과 나무)를 펴냈다.

제목부터 눈길을 잡아끈다. 얼핏 연애나 사랑을 모티브로 한 창작집일 것 같은 착각을 준다. 그러나 시인의 말은 보기 좋게 이편의 단계를 깨버린다.

“시집 제목에서 ‘당신’은 세상과 교감하는 구체적인 사물이야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공생해야 아름다운 삶이 연주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시집 발간 소식을 전하는 시인의 말은 ‘시적’이었다. 시인은 당연히 그러한 모티브를 취했

을 것인데, 기사를 쓰는 이편에서 연애 시일 거라 지레짐작을 했던 거였다. 세상의 사물을 ‘당신’으로 상징하고 그것들과의 공생을 노래한 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정한 ‘연애시’일지 몰랐다.

“올해로 신춘문에 등단 10주년”이라는 말에서 시집의 발간 배경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시인은 “오는 8월로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창작집은 여러모로 남다른 의미가 깃들여 있었다.

창작집에는 ‘산목련’, ‘모닥불’, ‘흔적’, ‘풍당’, ‘그루터기’, ‘동백꽃’, ‘여수반도’, ‘벽’ 등 일상에서 만나는 소재를 형상화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다양한 이미지에서는 오래 바라보거나 순간적으로 포착했을 시인의 감성이 묻어난다.

“주사기가 몸을 다스리는 처방이듯, 디카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정영희 시인 ‘디카시집’ 발간 ‘당신을 머리맡에 두고 편히...’ 사진·시 100여편 수록 40여년 교직생활 8월 퇴임...창작집·자서전 펴낼 계획



정영희 시인

한 줄이 코로나를 잡재우는 백신이 되길 기대합니다”라는 말에서 이번 시집을 묶어낸 마음도 어느 정도 가능된다.

사실, 우리 주변의 사물은 그저 사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또한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숨결을 불어넣고 의미의 싹을 틔우는 것은 이편의 ‘온기’다. 그는 “일상적인 주변 풍경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니 풍경이 숨을 쉬었다”며 “작업 과정 중에 ‘당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일도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작품집을 발간하면서 15년여 동안 손발이 돼주었던 차를 ‘떠나보낸’ 일도 있었다. “지자체로부터 노후 교체 차량 자금을 지원받고 차를 보냈죠. 레커차에 끌려가는 차량이 내 모습인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언젠가 제주 어느 여행지에서 날 닮은 차를 발견하고는 씩씩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폐차장 가는 길”은 그렇게 그때의 기억을 소환한다. “한눈파는 일은 없었다/ 생각집은 피웠어요// 기름 대신/ 햄버거를 가득 채워 보냈다” 시인은 가끔씩 고장이 나 말했었던 차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애들로 노래한다. 기름보다는 햄버거를 실어 보냄으로써 1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정을 표현한다.

그는 신춘문에 등단 이후 ‘선암사 해우소 옆

홍매화’, ‘아침햇빛연의집’, 산문집 ‘풍경이 숨쉬는 창’ 등을 펴내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다. 다른 이들은 교직과 창작을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가르치는 일이 주업이어서 무언가 읽고 쓰고 생각하는 시간이 창작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독서활동을 통해 “많은 시와 시인을 만났고 운명처럼 시를 사랑하게 됐다”는 말에서 그의 시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그는 잘못된 문학교육 풍토 탓에 “시는 특권계층이나 누리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편협한 사고와 수능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40여년 교직이라는 한 우물을 파온 것에 대한 자부심아닐까, 회한도 있는 듯했다. 아마도 베이붐 세대라면 누구나 겪었음직한 가난과 방향, 민주화 투쟁 등의 시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40대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레길에서 만난 야생화에 매료되기도 했지요. 꽃의 의미를 존재론적 삶으로 승화시킨 시인 김춘수나 나태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간에서 우리나라는 은유와 깊이를 깨닫고 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죠.”

그에게 시는 ‘개다리소반에 바람 한 손길 떠놓고 햇살 한 가닥 걸쳐놓은 담백하고 정갈한 밥상’과도 같다. 앞으로 그는 세 번째 시집을 펴내고 자서전을 엮을 계획이다. 또한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디카시 창작’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후진을 양성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레타 툰베리 등글고 등글게 흠어진 밤

광주극장, 23·25일 관객과의 대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시청각프로젝트, 부모의 이혼을 마친 아이의 이야기 등을 다룬 영화들이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광주극장은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행보를 담은 영화 ‘그레타 툰베리 <사진>’을 23일 오후 7시 상영한다. 작품은 지난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 학교 파업’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연설, 2019년 타인지 ‘올해의 인물’ 최연소 선정, 3년 연속 노벨평화상에 노미네이트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용기 있는 행보를 담고 있다.

이날 영화 상영 후에는 광주에서 활발하게 기후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1.5도’, ‘꿈꾸는 북극곰’, ‘래미학교 기후행동’ 동아리 등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25일 오후 7시20분 영화 ‘등글고 등글게’ 상영 후에는 정지혜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작품을 연출한 장민승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등글고 등글게’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영화 ‘흠어진 밤’은 25일 개봉한다. 작품은 부모님이 이혼을 결심한 후 엄마, 아빠, 오빠 진호까지, 네 가족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막내 수민의 일상을 통해 가족의 해체를 지켜보는 아이의 심리를 그리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문승아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연소 배우상과 한국경쟁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67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프린지 스태프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함께할 행사스태프를 모집한다.

이번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지정장소를 순회하는 ‘프린지페스티벌’과 ‘광주거리예술축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 5개구별 지정장소를 찾아가는 프린지 투어 형태로 7월부터 10월 중 토요일 10회 공연이 진행된다. ‘광주거리예술축제’는 5·18민주광장 및 예술의 거리 등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전문거리예술 단체를 초청하는 공연으로 진행된다.

지원분야는 운영지원·공연지원·홍보지원 등 3개로 구분돼 지원자가 선택해 접수 가능하다. 운영지원은 현장 운영 전반 업무 보조, 관객 동선 안내 및 민원응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은 공연진 관리 등을 담당한다. 홍보지원은 관객 안내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문의 062-670-798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챔버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갈라의 만남’

22일 남구문예회관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전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남구문예회관에서 ‘챔버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갈라의 만남’(사진) 공연을 연다.

올해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된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는 2003년 모이스트플루트앙상블로 시작해 호남지역의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질적향상을 선도해 왔다.

공연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12번 2악장 렌토’와 쇼스타코비치의 ‘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을 들려준다.

이어 2부는 오페라 갈라 무대로 꾸며진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진니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라보엔’ 중 ‘오 사랑스런 아가씨’,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을 선보인다.

지휘봉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김영언이 잡으며, 소프라노 윤하나, 테너 김홍용, 바이올린 문종아·채송화, 비올라 김주영, 첼로 김민수, 피아노 지해나, 플루트 김하은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2422-50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실생활 속 ‘공예의 힘’

전예공예가회, 24일~7월18일

‘공예, 쓰임새와 예술성.’

광주문예회관(관장 성현출)은 해마다 지역 미술인과 미술단체를 대상으로 전시 지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전예공예가회(회장 김인숙)가 24일부터 오는 7월18일까지 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에서 공예를 전공한 동문으로 구성된 전예공예가회는 지난 2009년 창립전 ‘아름다운 손짓’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물’, ‘공예, 일상으로부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열었다. 회원들은 공예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현대미술 속에서 공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 전시 주제는 ‘공예의 힘’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능성과 함께 작가의 미학적 탐



김인숙 작 ‘부인이 전체를 말하다’

구가 돋보이는 작품을 전시 중이다.

강인호·강지향·고재희·곽유나·국가영 등 회원 35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는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를 지낸 백일 교수를 비롯해 김철우·김현주 교수 등도 초청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함께해 모두 45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회원들은 나무, 흙, 린넨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다양한 색상과 자유로운 성형법이 눈에 띄는 도자 공예 작품과 전통과 현대의 미감이 어우러진 소반, 색의 조형미를 만끽할 수 있는 조각보, 투박한 매력의 옹기 등 목공예부터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등 다채로운 작품 78점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